

한-일 공급망 파트너십(SCPA) 이행 본격화

- 1차 이행 협의회 개최, 핵심광물·자원 공급망 협력 및 글로벌 공조 논의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9.2일(수)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「제1차 한·일 공급망 파트너십(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, SCPA) 이행 협의회」를 개최하고,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수석대표: (한)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- (일) Tanaka Shogo 통상전략선임과장

한·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, 핵심광물·자원 분야 협력 및 글로벌 통상 이슈 공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올해 3월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체결되었다. 지난 5월 한·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SCPA를 기반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.

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·다자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위기상황에서의 LNG 및 원유·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또한, CBAM*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.

*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: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역외기업이 생산한 탄소다배출 품목에 대해 역내기업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

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“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,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·일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”며, “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다정 (044-203-48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엽 (044-203-4876)